

토론

다케우치 : 이케자와 선생님과 최일범 선생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케자와 선생님은 중국 사상, 특히 현대 생명윤리 사상이 유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일범 선생님은 현대 한국인의 사생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율곡 이이의 사생관을 분석하셨습니다. 양 발표 모두 유교 윤리를 현대에 와서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할 것인가에 관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발표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에릭 : 동경대학 사생학 연구실의 특임연구원 에릭 시케탄츠라고 합니다. 연구 분야는 중국의 근대 불교의 형성입니다.

흥미로운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원고의 첫 부분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발표에서 선생님께서는 자살한 중학생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가능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즉 방금 소개해주신 유교적 사상을, 고령자의 빈곤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근년에 이렇게 자살자가 급증한 현상, 이것은 정효운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범 : 두 가지 질문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배경은 역시 근대 문명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많이 상실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한국 사회는 지금 또

다른 계급사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등을 하지 못하면 열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얻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유교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첫째로 붕괴된 가족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모두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아이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이 매우 부족합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는 대가족제도였기 때문에, 한 가족공동체 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으며, 그러한 가족 공동체 속에서 누구든 죽음과 삶에 대하여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공동체가 붕괴됨으로써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따라서 늙어가는 인생의 과정, 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과거와 같은 대가족제도를 회복시켜 나가기는 대단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도로써 진지하게 인식하고 또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했던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국가와 사회가 전통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의 유교의 적용, 현대적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케우치: 처음에 이케자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탁: 한림대학 생사학연구소의 오진탁입니다. 2004 년에 한림대학에 생사학 연구소가 만들어져 2007 년 부터죽음 준비 교육, 2005 년 부터자살 예방 교육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원래 불교철학, 노장철학, 동양철학으로 이케자와 선생님과 동일한 동양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케자와 마사루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발표 제목이 <현대 중국의 생명윤리>인데, 생명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유교 전통 맥락 속에서 생명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우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 원고 중에도 있습니다만, 유교는 방대한 축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 시대의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공자라 할 지라도 이전의 사상을 계승, 종합하여 집대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 경전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공자한테 제자가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공자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예기> 같은 곳에서는 ‘정기신’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사학이든 사생학이든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생명이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유교의 경우에는 간단한 것 같지 않고, 사실은 유교에서 생사학이나 사생학의 관점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질문은 유교적 입장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자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사학이 자살 예방에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회 활동으로써 어떤 식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지, 특히 COE 라는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현실에서 자살 예방에 생사학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케우치 : 질문이 세 가지로 좀 많은데,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의 종합 토론에서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앞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케자와 :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생명의 문제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교에서의 생명’ 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발표 제목에 ‘유교적 생명윤리’ 라고 되어있는 것은, 일군의 중국 학자들이 처음

에 낸 논문집의 제목이 <confucian bioethics> 였는데 그것을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즉 유교적 생명윤리라고 했을 때의 생명은 ‘bioethics’ 의 bio 에 해당합니다. 이 말을 사용한 이는 陶黎寶華라는 사람으로, 이것을 생명윤리라고 번역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죽음’ 이라는 것도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굳이 덧붙여 말씀 드릴 것도 없이 여러 가지 방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도덕성에 의해 죽음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 또는 기억에 의해 이해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氣)의 집산에 의해 이해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단순히 말씀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 토론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제 자신은 실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COE 프로젝트 안에는 실제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종합 토론에서 어쩌면 소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케우치 : 마지막의 현대 한국, 현대 일본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 토론에서 한꺼번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1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